

# 구약논단

제17권 3호(통권 41집) 2011년 9월 30일

윤 형(장신대) 성경의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창 1-11장) ..... 136  
이 논문은 노동이란 개념을 통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정경비평방법을 사용하여, 창세기 원역사를 주석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의 원역사는 '주권' 개념이 핵심이며, 노동과 그 객체에 대한 관계는 상하지배관계가 아닌 상호의존관계라는 것을 도출한다. 이 논문은 올바른 노동신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Youn, Hyung** Arbeit und Herrschaft in der biblischen Urgeschichte(Genesis 1-11)  
..... 136

## 창세기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sup>1)</sup> (Arbeit und Herrschaft in der biblischen Urgeschichte, 창 1-11장)

윤 형 | 장신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 이 삼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Arbeit)’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성경의 원역사(창 1 - 11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 개체는 자신의 움직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바로 이 움직임은 일, 즉,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원역사는 하나님의 노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동의 시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자의 일의 근원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양자의 관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경의 첫 부분(창 1장)부터 노동행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기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자, 즉, ‘작업자(Handwerker)’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기사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1) 이 글은 제86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2011년 4월 29일)에서 필자가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또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10년 2월)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선 파악하기 위하여 축약한 글임을 밝혀둔다. 본 논문의 해석학적 입장은 공시비평방법 중 본문의 최종 형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정경적 입장에 서있으며 랍비적(미드라쉬 및 유대적 관점의 주석)인 해석의 측면도 고려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즉, 그의 노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해왔던 하나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다만 서술적이며 규범적으로 소개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히브리동사들은 그 과정이 역동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낙원이야기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접촉함으로써,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아담은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다(창 2: 15). 이것은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일에 대한 규정(첫 번째는 창 1: 28절의 번성함과 다스림의 계약임: 땅을 다스리라, *Dominium Terrae*)인데 사람의 실제적인 노동의 기본 규정이다: '경작하며(קָנַח 아바드) 지키다(שָׁמַר 사마르)'. 성경적으로 사람의 모든 노동의 신학은 그것에 근거한다. 처음부터 노동과 인간됨은 분리되지 않는다(참조, 창 2: 5). 그런데 그런 가치중립적인 노동이 에덴동산 밖에서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 또 노동의 성격과 조건들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3장의 하나님의 저주는 노동의 고통에 대한 원인론적 성격을 갖는다.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사람의 노동과 그 분화(농부와 목자), 그와 관련된 갈등을 '경작과 지킴(창 2: 15)'의 상관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5장은 아담(Adam) 후손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는데 홍수이야기의 주인공인 노아까지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서술한다. 여기서 라멕은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생기는 노동의 고통(창 3: 17f.)에 직면해서, 장차 자신의 아들 노아(נֹחַ)가 가져올 위로를 간구한다(창 5: 29). 땅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노력하여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후회하며 그들을 지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한다. 이 재난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는다. 홍수 이후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미래는 새로 규정된 하나님의 축복과 계약에 의해 담보되며 영속성이 보장된다. 그런데 여기서 창 1장 28절의 주권명령이 변경되어 선포된다. 이제 식용을 위해 동물에 대한 살육이 허락된다. 새 계약의 보증인 무지개(קוֹחַ קֶשֶׁת)에 이어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인 노아의 포도원재배(כַּבֵּשׁ)이야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노동과 관련된 어두운 측면, 즉, 자기절제(*Selbstherrschaft*: קָנַח)의 상실로 이어지는 노아의 술 취한 장면이 나타난다. 아버지에게 대한 세 아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아들들의 후손 사이의 장래관계에 대하여 듣는다. 여기서 주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이 단순히 직업의 분화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인간 상호간의 '지배권'(Herrschaft)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그 후손들 사이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아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읍 건설자, 사냥꾼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니므롯 이야기(창 10: 8-12)는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사회구조를 암시한다. 탑 건설이야기(창 11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며, 사람들은 탑의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율권(Autonomie)을 확보 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주권갈등(Herrschaftskonflikt)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분에 해당하는 인간노동의 정체성은 전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행위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원역사 전체를 분석하고 고찰하고 나서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 사이를 규정하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 2. 일의 개념

본 논문의 주제개념은 '노동 혹은 일'인데,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이란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물의 생산, 창조, 변환, 나누기 혹은 그것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각각의 연속적이면서 긴장된 질서 있는 행위이다.<sup>2)</sup> 말하자면 일이란 목적에 적합한 과제를 수행하는 각각의 행위이다. 그러나 대부분 노동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여러 다른 언어들에서도 증명된다(희랍어, 라틴어, 중세 고독일어, 불어 혹은 러시아어).<sup>3)</sup>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노동은 그 당시 육체적이며 수고스러운 행위로만 이해되었고, 따라서 이런 종류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하층민에게 부과되었다. 그러므로 그 단어는 고통, 곤경 그리고 어려움 등과

2) REFA, *Methodenlehre des Arbeitsstudiums Teil I*, (München: Hanser, 1973), 14쪽.

3) M. D. Chenu, Art.: *Arbeit*, in: J. Ritter (H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I, (Darmstadt: Wiss. Buchges., 1971), 480-482쪽.

동 의어가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사회 안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고대 헬라시대 이후 육체노동은 자유인의 일(학문, 예술 그리고 국가공직)과는 반대로 노예의 일로 비하되었다.

히브리어로 된 ‘일’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약본문(MT)에는 14개에 달하는 ‘일 (Arbeit)’에 관한 다양한 히브리 단어들(עבד, 아바드, מלאכה, 플라카, עֲבֹדָה, 이차본, עָשָׂה, 아사, בָּרָא, 바라, יָלַד, 알라드, יָצַר, 야차르, בָּנָה, 바나, פָּעַל, 파알, עָמַ, 아말, עָמַ, 야게아, סָבַלָה, 시블라, מָס, 마스, קָנָה, 카나)이 나타난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일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사람이 행하는 일의 특징을 묘사한다. 특별히 בָּרָא(바라/창조하다)라는 타동사는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일 경우에만 사용된다. 동시에 본동사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쓰임새가 독특하다. 그 밖의 다른 히브리 동사들을 통해 창조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고 그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갈등과 싸움의 모티브를 갖고 있는 고대 동방세계의 창조신화와는 달리, 성경기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타동사를 이용하여 주체와 객체를 확실히 분리시키면서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그 창조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한 활동작품임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עָבַד(아바드)동사는 하나님에게는 쓸 수 없는 동사이다. 하지만 본동사는 사람의 ‘일’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이다. 실제로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에게 제시된 문화명령은 이 단어에 의해 구체화된다.

### 3. 구약에서의 ‘노동’에 대한 연구 개관

구약에서 ‘노동’이라는 개념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다른 주제에 부속되어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노동 및 일에 관한 일련의 담화를 구체적으로 개념화시켜 조직화한다는 것이 어렵다. 우선 ‘일하다(아바드)’란 동사와 관련하여 1950년 린드하겐(C. Lindhagen)은 ‘구약에 나타난 종의 모티브(The significance of the servant motif)’라는 주제를 다룬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성경과 성경외적인 자료를 통해 עָבַד(아바드/일하다)의 의미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그는 그 낱말의 모티브를 ‘강자와 약자 사이의 상관관계’로 정의했다. 이어서 리제너(I. Riesemer) 역시

1979년 자신의 논문에서 구약에서 ‘일하다(עבד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계 속에서 쓰였는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 그 단어의 어원을 연구했다. 그에 의하면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의존되어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4)</sup> 1953년 리차드슨(A. Richardson)은<sup>5)</sup> 구약이 노동에 대하여 무엇이냐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여기서 그는 노동을 사람의 삶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기능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그는 노동을 율법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와 아울러 페티나토(G. Pettinato)라는 학자는 ‘왜 사람이 창조되었는가?’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고대 동방 세계의 전승들을 연구했다.<sup>6)</sup> 여기서 그는 ‘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특히 고대 수메르와 앗시리아 사람들의 노동관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위한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신들을 위한 매개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까지 신들이 했던 힘든 일을 그들로부터 떠맡았기 때문이다.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자신의 창세기 주석(1974)에서 원역사에 나오는 문화적 업적들이 인간의 문화노동과 관련된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노동과 문화를 창조자와 창조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한다. 로프크(N. Lohfink)는 자신의 저서에서 안식일 계명이 성경적인 노동신학을 전개하기 위한 살마리로 이해한다.<sup>7)</sup> 특히 독일의 구약학자인 에바흐(J. Ebach)는 ‘일’이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하였다.<sup>8)</sup> 그는 노동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그 노동 때문에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노동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어서 그는 사 11장 6-8절과 로마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목가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대 헬라세계는 노동이라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지만, 성경은 억압으로부터의 노동의 해방을 꿈꾸는 것이다.

4) I. Riesemer, *Der Stamm עבד i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79).

5) A. Richardson, *Die biblische Lehre von der Arbeit*, (Frankfurt a. M.: ANKER, 1953), 20쪽.

6)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7) N. Lohfink, *Unsere großen Wörter*, (Freiburg: Herder, 1985), 190-208쪽.

8) J. Ebach,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 in: ThPQ152 (2004), 275-283쪽.

#### 4. 사회사적인 노동의 역사

성경의 노동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세계에서의 노동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대 세계의 노동관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각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실제적인 힘으로 일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노동(Gottesarbeit)’이라고 표현된다. 인간이 신들의 부속품으로 생각되는 메소포타미아 전승과는<sup>9)</sup>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창조를 언급하는 구약본문은 노동이 처음부터 인간에 속한 것으로 본다(창 2: 5, 15).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노예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한다.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문화명령(Kulturauftrag)을 성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한다.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일하며, 그 일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안식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평화로운 주권의 상징이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 및 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하나의 본보기이다(출 20: 10f.; 신 5: 14f.). 따라서 안식일의 계명은 성경적인 노동신학을 전개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한다.<sup>10)</sup> 랍비적인 노동관 역시 성경에 근거한다. 랍비신학과 후기 유대교에서 특징적인 것은 육체노동과 토라연구 사이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sup>11)</sup> 그들 또한 하나님의 노동과 그의 안식을 창조의 질서로 본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대전제에 근거한다(요 5: 17). 특히 ‘섬긴다’는 표현은 예수의 담화를 관통한다. 그래서 계급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혁명적이었다.

고대 동방세계에서 노동에 대한 질문은 ‘왜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창조에 관한 고대신화의 핵심주제이기도 하다. 왜 인간이

9) J. Ebach, *Arbeit und Ruhe*, in: Ursprung und Z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6), 98쪽.

10) D. Vetter, *Das Judentum und seine Bibel, Religionswissenschaftliche Studien 40*, (Würzburg: Echter, 1996), 340쪽.

11) M. Brocke, Art.: *Arbeit*, in: TRE Bd. 3, 619쪽; J. Ebach,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 in: ThPQ152 (2004), 280쪽. 랍비들 또한 토라연구와 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노동개념과 연결시킨다. 랍비 예후다 하나시의 아들 라반 감리엘(Rabban Gamliel)은 이렇게 말한다: “토라 공부는 생계에 필요한 일에 열중하는 것과 결부될 때 아름다운 것이다.”

창조되어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한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졌다. 즉, 신들이 그들의 힘든 노동으로부터 면할 수 있도록 말이다.”<sup>12)</sup> 사람의 전적인 봉사는 신들이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 및 수발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들에게 철저히 종속되어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주종관계이다. 양자 사이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나(ich)와 그것(es)’이라는 목적적 관계만 있을 따름이다. 애굽에서는 왕이 신의 자리에 들어앉아 백성들을 강제노동으로 지배한다.<sup>13)</sup> 고대 헬라세계의 노동관 역시 노예노동이라는 현실로 각인되어 있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 걸친 노예노동의 확산(slavery society)은<sup>14)</sup> 노동에 부자유와 품격저하라는 지울 수 없는 인장을 새겨놓았다. 또한 그 일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육체노동자에게는 완전한 인간됨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노예는 단지 하나의 물건일 따름이다. ‘일 대신에 여가라는 모토는 그 당시 인간의 이상이었지만 노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인간이 지향점으로 따라가야 할 신은 순수한 사고(Denken)로서 규정되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삶은 순수한 사고를 목표로 한다.’<sup>15)</sup> 이렇게 볼 때 신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노동관이 전혀 틀려진다. 로마의 노동관도 그리스의 노동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예제도 없이는 고대 희랍국가, 희랍예술, 학문 그리고 로마제국도 존재하지 않는다”<sup>16)</sup>는 말이 그것을 반증한다.

## 5. 본문주석과 해석

본 항목은 ‘노동과 주권(Arbeit und Herrschaft)’이라는 개념을 통해 원역사에서 주제개념인 ‘노동’과 관련된 단락을 주석하면서 해석해나가는 과정이다.

12)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21f.쪽: 신들의 삶은 전혀 신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이다.

13) A. Eggebrecht u.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43쪽.

14) H. Cancik (Hg.), *Der Neue Pauly. Enzyklopädie der Antike*, Bd. II, (Stuttgart: Metzler, 2001), 624-627쪽.

15) P. Abenque, Art: *Aristoteles*, in: RGG<sup>4</sup> Bd. I, 730쪽.

16) Lexikon der Antike, Art.: *Arbeit*, 496-498쪽.

## 1) 하나님의 노동: 창조

창 1장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다기 보다는 그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물체의 발생에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Gotteswort)로서의 창조명령과<sup>17)</sup> 작업의 대상을 나누고 만들고 배치하는 동적인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제 3일째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각기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면서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다(창 1: 11). 이런 표현을 통해 신화에 등장하는 ‘땅은 만물의 어머니’라는 자연주의적이며 신화적인 표현은 배제된다. 5일간에 걸쳐 세상의 환경에 해당하는 피조물들이 창조된 후 6일째에 마침내 지상에 생명체가 창조된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표징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라(Dominium Terrae)’는 주권을 위임받는다. 이 명령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이<sup>18)</sup> 파생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근원이다. 다스림(Dominium Terrae)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두 동사(카바쉬, 라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우선 **כָּבַשׁ**(카바쉬/다스리다)동사는 어떤 삶의 공간의 점령 또는 주인을 위한 노예봉사의 시작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뤼터스워드(U. Rütterswörde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 1장 28절에서 보듯이 두 동사의 순서는 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삶의 공간의 정복이며 그 다음에는 생물의 지배이다.”<sup>19)</sup> **רָדָה**(라다/밟다)동사는 구약에서 지배와 관련된 대표적 동사로서 노동과 부역을 독려하는 폭력이 포함된 명령인데, 그것은 때로 벌주기도 하고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어원은 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17) B. Jacob, *Das Buch Genesis*, 30쪽. **אָמַר**(바요메르/또 그가 말하기를)은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회피되도록 만드는 1장의 강한 초자연주의가 만들 어내는 유일한 특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신으로부터의 유출이 아니라, 그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18) C. Westermann, *Genesis BK I/1. Teil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794쪽. 인간의 문화적노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P는 그것을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한다. 그로부터 문화적이며 문명적인 모든 작업의 적법성이 도출된다.

19) U. Rütterswörden,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103쪽. 그는 이 책에서 주권(지배권)개념 하에 ‘정복하다’란 동사와 ‘다스리다’라는 동사를 비교분석하면서 그 낱말 안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음을 밝혀낸다. 이에 반해 강 사문은 “땅을 정복하라”에 사용된 <카바쉬>란 동사를 “땅을 가꾸어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조, 강 사문, 『구약의 자연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99쪽. 결국 이 문제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과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리키는데, 이것은 폭력적인 측면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러나 그 낱말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발견된다. 코흐(K. Koch)는 겔 34장 4절과 시 49장 15절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낱말의 선택에 있어 창 1장은 자신의 동물들을 끌고 풀을 뜯기고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표현과 잘 어울린다."<sup>20</sup> 하 경택은 이런 창조질서에 입각한 다스림의 예를 동물에 대한 다스림과 관련시켜 설명한다.<sup>21</sup> 그래서 두 동사의 적절한 번역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논쟁이 되어왔는데, 이는 최근에 와서 폭력적인 관점이 강하게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내부에 담긴 의도(Sub-text)와 상황 문맥(Kon-text)과 본문간의 상관관계(Inter-text)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일간의 창조 작업( **וַיַּבְרָא** 플라카/일) 이후 하나님은 제 7일을 따로 구별하여 안식일로 세운다. 그의 창조사역은 '끊임없는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쉼'이라는 안식으로 끝난다. 따라서 일과 안식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위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히브리어 타동사들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한다.<sup>22</sup> 이에 반해 창조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이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치 정리된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작업자처럼 일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람의 노동신학의 토대를 이룬다: "하나님의 일로부터 사람의 일이 유래되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유일무이한 품격을 얻게 된다."<sup>23</sup> 무엇보다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한 '좋다(**טוֹב** 토브/ 좋음)'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노동과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며 친밀한 주권적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위탁한 사람의 노동은 하나님의

20) K. Koch,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233쪽. Koch는 Ritterswörden과는 달리 '정복하다, 다스리다'란 동사 속에 목자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본다. 강 사문도 이런 의미로 '라다'동사를 번역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본래 이 동사는 바벨론 궁중언어로 왕이 제국을 점령했을 때 제국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참조, 강 사문, 「구약의 자연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98쪽.

21) 하 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제 14권 4호 제 30집(2008년 12월), 132-133쪽.

22)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4), 54쪽.

23) G. Wallis, *Die Selbstverwirklichung durch die Arbeit im Alten Testament*, in: *Mein Freund hatten einen Weinberg*, (Frankfurt a. M.: Lang, 1994), 225-237쪽.

노동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인간노동의 시작(낙원이야기)

‘세상을 다스리라’는 노동의 근원에 대해 말하는 창조기사와 달리, 낙원이야기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노동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하나님 일의 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자의적 결정권(Autonomie)’이라는 주권(Herrschaft)의 자유(Freiheit)를 위임한다. 거시적 차원의 창조기사와는 달리 낙원이야기는 미시적으로 도공(陶工)<sup>24)</sup>과 같은 하나님의 인간창조와 그의 삶의 방침을 서술한다. 우선 사람은 경작인으로 규정되는데, 그의 일은 땅을 경작( 𐤀𐤁𐤁𐤀 아바드)하고<sup>25)</sup> 그것을 지키는 일( 𐤀𐤁𐤁𐤀 사마르)이다(창 2: 15).<sup>26)</sup> 그것은 창조기사의 문화명령이(창 1: 28) 보다 구체화 된 것이다.<sup>27)</sup> 게다가 𐤀𐤁𐤁𐤀(아바드)는 ‘섬김’을 의미한다. 경작은 땅을 사람의 목적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섬김은 동시에 전적인 객체화가 아닌데, 이는 사람의 봉사를 통해 땅에게도 주체적인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𐤀𐤁𐤁𐤀(아바드)에는 ‘경작과 지킴’의 상호보완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은 언제든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연대감을 갖도록 창조했다. 이에 폰라드 역시 둘 사이의 강한 의존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땅에서 취해졌다. 따라서 그는 땅에 의존되어 있고, 그 땅은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근거점이며, 인간과 땅 사이에는 창조에 걸맞은

24) 이 용호, “시 8편에 나타난 인간: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논단 제 15권 3호 제 33집(2009년 9년), 24-25쪽.

25)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79쪽. 야콥은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라는 𐤀𐤁𐤁𐤀 부정사를 이렇게 번역한다: 땅을 시중들기 위하여(die adama zu bedienen). 이 번역은 땅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박 종구,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창1-11장: 인간의 미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7), 174쪽, 이 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창세기 1-11장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02-103쪽.

26) 김 재구,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제15권 1호 제 31집(2009년 3월), 55쪽. “이 두 단어가 오경 속에서 한 문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세 번으로 모두 다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성막에서의 직무수행을 할 때 사용된다(민 3: 7-8; 8: 26; 18: 5-6). 이것은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일이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바치는 직무와 동일함을 보이는 것이다.”

27) G. Liedke, *Von der Ausbeutung zur Kooperation*, in: *Humanökologie und Umweltschutz*, E. von Weizsäcker (Hg.), (Stuttgart: Klett, 1972), 45쪽.

연대성이 있다.”<sup>28)</sup>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은 바로 ‘주권과 봉사’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관점에 따르면 ‘일한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폭력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땅에 대한 봉사(עֲבָדָה 아바드)이다. 베스터만(C. Westermann) 역시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본과정들로 본다.<sup>29)</sup> 사람의 노동은 하나님의 공정(צְדָקָה 토브/좋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제 사람의 노동환경이 어려워졌으며 남자와 여자의 일에 고통(עֲבָדָה 이차본/고통)이 수반된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창 3장 17-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는 노동 그 자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상황에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 자체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사건은 사람의 자유와 자기인식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sup>30)</sup>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에 대한 ‘주도권(Herrschaftsrecht)’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했으나 그는 ‘경작하며 지킴’이라는 자신의 과제를 균형 있게 실현하지 못한다.

### 3) 문화 노동(Kulturarbeit)의 시작

낙원이야기에서 선악과가 ‘노동과 주권’에 있어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형제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문제로 등장한다. 여기서 가인의 직업은 농부로, 아벨은 목자로 나타난다. 전자는 땅의 경작(עֲבָדָה 아바드)에 관계되며, 후자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보듯이 유목민의 삶을 보여준다. 목자의 일은 양을 지키는(שָׁמַר 사마르)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각각의 제물은 노동(עֲבָדָה 아바드)의 결과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שָׁמַר 사마르)가 관건이다. 결국 하나님의 제물처리방식에 따라<sup>31)</sup> 이 사건은 형제간의 갈등

28)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Genesis*, 67쪽.

29) C. Westermann, *Arbeit und Kulturleistung in der Bibel*, (München: Kaiser, 1984), 55쪽.

30) I. Kant, *Mutmaßlicher Anfang der Menschengeschichte*, in: Kant Werke in sechs Bänden, W. Weischedel(Hg.), Bd. 6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Darmstadt: Wiss. Buchges., 1977), 89쪽.

31) J. Ebach, *Kain und Abel*, in: „... und behutsam mitgehen mit deinem Gott., Theologische Reden 3, (Bochum: SWI-verl., 1995), 195쪽. 여기서 에바흐는 세 가지 처리방식을 논하고 있다. 첫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차이, 둘째 하나님의 주권, 셋째 보정교육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수용과 거부이다.

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살인으로 종결된다. 형은 동생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어야 (אָרַם 사마르) 하는데, 농부( אָב אִבְרָם) 가인은 정반대의 일을 저지른다. 가인은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낙원이야기와 양립된다(창 3: 17).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은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살인자 가인이 각종 직업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발전(창 4: 17-22절)에 기여한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이다.<sup>32)</sup>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אָרַם 사마르) 역설적으로 자신의 직업인 땅을 경작하지 못한다( אָב אִבְרָם). 본문에 의하면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에 중심을 두며, 궁극적으로 셋의 후손은 그 주권(Herrschaft)이 아웨와의 관계에 있음(아웨의 이름을 부름; 창4:26)을 보여준다.

#### 4) 홍수이전 이야기

창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창 1장 28절(번성함)의 구체적인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히브리 동사 ‘낳다(יָלַד, 알라드)’라는 모티브(Motiv)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매개하고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창 5: 3). 이 족보는 인간의 문화발전과 관련한 보고가 아니라 경건(아웨의 이름을 부름, 창 4: 26)을 전승시킨 후손들의 명단이다. 그 목표는 노아를 향하고 있는데, 라멕은 자신의 아들인 노아가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창 5: 29). 이것은 라멕이 아담의 죄로 인한 땅 저주 전승(창 3: 17)을 알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성취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이 사람에게 엄습한다. 창 5장 29절에서 노동이란 명사(עֲמָלָה 마아세/일)와 고통과 관련된 명사(עֲבֹרָה 이차분/고통)가 나타난다. 라멕의 소원 다음에 이어지는 창 6장 1-4절에서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과 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급기야 생물들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이 단락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בְּנֵי אֱלֹהִים 브네 엘로힘)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해석의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다: 천사, 힘을 가진 고위계급, 셋의 자손 등.<sup>33)</sup>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32) J. Ebach, *Wel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Stuttgart: Kohlhammer, 1979) 324쪽. 에바흐는 이 저서에서 세상과 문화발전의 기원을 밝히는데 고대 동방과 성경기사를 비교 검토한다.

33) G. J. Wenham, *Genesis*, (Dallas, Tex.: Word Books Publ., 1987), 139쪽. 하나님이 보기에

전통적인 의견인 ‘셋의 자손’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명사(חֶשֶׁם אֲנֹכִי 하셈 안췌, הַגְּבֵרִי 하기보림, הַנְּפִילִי 한느필림)은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의 실상을 말해준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의 행위는 폭력, 교만과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주권은 올바른 행동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적인 지배권(Herrschaft)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점이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낸다(창 6: 6).

### 5) 선박 건조자 노아

노아는 이 단락에서 선박건조자로서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노아의 족보리들 안에서 진행된다(창 6: 9). 선박건조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길가메쉬 서사시와는 달리 하나님이 제시한 선박과 관련한 설계정보는 단 3줄에 불과하다(창 6: 14-16).<sup>34)</sup> 또한 그가 방주를 어떻게 건조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그가 다 준행했다는 말만 나올 뿐이다(창 6: 22; 7: 5). 특히 노아의 철저한 침묵이 강조된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Herrschaft)에 대한 노아의 순종을 보여준다. 노아의 선박은 배가 아니라 큰 상자 같은 모습이다. 이 안에는 사람이 조종할 장치가 전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확실하게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자연재해와 싸워 신의 도움 없이 이겨내는 인간의 자주적인 노력은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방주를 인도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홍수이야기는 노아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마무리된다(창 8: 20). 이와 관련하여 길가메쉬 서사시(Gilgamesch-Epos)에서는 신들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제물주위에 새처럼 몰려든다는 내용이 나온다.<sup>35)</sup> 또한 아트라하시스 신화(Atrachasis-Mythos)에서도 신들에게 바칠 제물의 준비를 명하는 아트라하시스의 장로들에 대한 명령을 읽을 수 있다.<sup>36)</sup>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노동의 결과물인 제물에 자신들을 의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

올바르지 못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34) 참고, O. Keel/M. Kücher, *Synoptische Texte aus der Genesis*, (Fribourg: Verl. Schweizer. Kath. Bibelwerk, 1971), 108쪽. 길가메쉬 서사시에서 홍수영웅 우트나피쉬탐(Utnapishtim)은 선박건조에 대한 지침을 ‘에아’(Ea) 신으로부터 받는데, 건조명령은 8절(XI 24-31)이고 그 실행 장면은 38절(XI 48-74, 76-86)로서 노아 홍수기사보다 길다.

35) K. Hecker, *Das akkadische Gilgamesch-Epos*, in: TUAT, Bd. III,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1993), 734쪽.

36) W. von Soden, *Der altbabylonische Atrachasis-Mythos*, in: TUAT Bd. III, 627f쪽.

적인 증거이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제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세상질서를 규정한다(창 8: 22).

#### 6) 새 계약과 포도원 경작자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및 땅위의 모든 생물과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창 1장 28절의 평화로운 문화명령(음식물 규정: 채식)과 비교하여 폭력적인 요소가 삽입되는데, 그것은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이제 사람에게 육식이 허락된다(3절).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생물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주권(Herrschaft)을 재확인한다. 이 계약으로 인해 세상은 홍수라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증표로서 무지개( **קוֹחַ** 케웨트)가 주어진다.<sup>37)</sup> 바로 이 계약사건 이후 포도원 경작자인 노아의 만취사건으로 인해 형제간의 불평등한 '주종관계'가 설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전의 낙원이야기(창 2: 15)에서 사람의 노동과 관련된 **עָבַד**(아바드/일하다)라는 동사이다.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가졌던 동사의 의미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전화되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지배(Herrschaft)라는 개념으로 변화된다. 노아가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에게 인위를 가져왔으면 했던 아버지 라멕의 희망(창 5: 29)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로 등장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노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고통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노아는 포도를 재배하고( **עָבַד** 아바드) 소출을 거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지( **שָׁמַר** 샤마르) 못했다.<sup>38)</sup>

#### 7) 니므롯

아들들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 담화에 이어, 10장에서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가나안)의 자손 중 니므롯(Nimrod)이라는 사람의 활동이다(창 10: 8-12). 그는 노아의 예언에 따르면 마땅히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종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성읍들을 세우면서

37) E. Zenger, *Gottes Bogen in den Wolken*,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1983), 131쪽.  
구름 가운데서 비치는 무지개는 창조주 아웨의 영광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과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표식이다.

38) K. Papajorgis, *Der Rausch. Ein Philosophischer Aperitif*, (Stuttgart: Dtv, 1993), 111쪽.

지배자처럼 보이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는 사냥꾼( צ צ아이드)으로 불리운다. 고대세계에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은 말을 타고 동물을 사냥하는 여러 벽화에 잘 나타나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왕국(מלכות) 마블리카)이라는 조직사회의 출현을 보게 된다. 9절의 표현은 니므롯에<sup>39)</sup> 대한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sup>40)</sup>이로다.” 어쨌든 ‘그의 나라’라는 정치적 개념은 당시의 사회구조를 표현하는데, 왕국이란 하나의 계급사회임을 암시한다.<sup>41)</sup> 동시에 이것은 전쟁을 통해 사람을 노예로 잡아들여 자기왕국의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왕의 지배 행위가 있음을 추측케 한다.

## 8) 바벨탑 이야기

니므롯의 성읍건설과 민족들의 흠어짐 그리고 셈 족보 다음에 11장의 서두에서 사람들의 성읍건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0장이 민족의 흠어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면, 11장은 그 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읍건설장면을 묘사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장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우선 이 성읍건설 자체는 일반적인 토목공사라는 노동 현장으로서 외관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탑과 성읍건설의 목적이다. 건설의 주목적은 사람의 ‘이름을’<sup>42)</sup> 높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창 3장) 이후 다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주권에 대한 갈등이다(Herrschaftskonflikt; 창 3: 22; 11: 6). 고대시대에는 사냥과 더불어 성읍과 탑 건설이 권위적인 왕권의 상징이다.<sup>43)</sup>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문화

39) R. S. Hess, *Studies in the Personal Names of Genesis 1-11*. Veröffentlichungen zur Kultur und Geschichte des Alten Orients und des Alten Testaments(AOAT) Bd. 234쪽,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74쪽: 그의 이름은 מַלְכּוּת(마라드/만역하다)란 히브리 동사의 어근에서 나온 청유형(Kohortativ)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이다.

40) J. G. Herder,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Bd. 6. (Frankfurt a. M.: Dt. Klassiker-Verl., 1989), 365쪽: “만일 니므롯이 짐승들을 죽이고 나중에 사람을 억압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사냥꾼이다.”

41) *ThWAT*, Bd. IV, 931쪽.

42) *The Midrasch Rabbah, Genesis I*, (Tübingen: Mohr Siebeck, 1999), 307쪽: 미드라쉬에서 말하길, “A Name means nought else but an idol.”

43) A. Borst, *Der Turmbau von Babel Bd. IV Schlüsse und Übersichten. Geschichte der Meinungen über Ursprung und Vielfalt der Sprachen und Völker*, (Stuttgart: Hiersemann, 1963), 1961쪽.

명령으로 만족하지 않는다(창 1: 28). 여기서 윌링거(C. Uehlinger)에 의하면 창 11장은 세계 지배와 관련하여 신 앗시리아의 세계 지배라는 지평에서 정치적이며 신학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하나의 언어라는 표상을 고대세계의 세계질서 및 정치적인 이상으로(Ideal) 이해한다.<sup>44)</sup> 언어혼란으로 인한 사람의 흠어짐에 이어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원역사가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금까지 서술된 다양한 족보(창 4, 5, 6, 10, 11장)에서 특이한 것은 족보 속에 한 인물이 나오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활동적인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데 바로 그 족보 안에 희망(Hoffnung)이 들어있다.

## 6. 결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지배권(주권: Herrschaft)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중심부에 놓여있다. 둘째, 사람의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본래 사람에게 주어진 소여(所與)이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규정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볼 때 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본질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율권의 구체적인 결과인 역사 속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행위를 인정한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란 사람들이 경계선을 침범한 것에 대한 결과인데, 이는 외적인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보증할 따름이다. 그러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희망과 그에 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원래 목적이 실현되도록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 가지 결과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양자의 일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일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이에 창세기 원역사에서 ‘일’이라는 실체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그곳에서 모든 ‘일’의 시작이

44) C. Uehlinger, *Weltreich und eine Rede, Eine neue Deutung der sogenannten Turmbauerzählung*(Gen 11,1-9), OBO 101, (Freiburg: Univ.-Verl., 1990), 512f쪽.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대한 주권과<sup>45)</sup> 관계되며, 사람의 일은 자연에 대한 주권과 관계가 있다. 사람을 창조한 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주권을 위탁한다(창 1: 28). 이 위탁명령과 함께 사람의 일이 시작되는데, 주권 혹은 지배권이 사람과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위치한다. 사람의 일로서 자연에 대한 주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모델은 조화로운 질서에 근거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의 주권은 한 척도에 의해 정해지는데, 즉, 일과 인식의 조합이다. 그러므로 그의 주권은 폭력적인 억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에 입각한 다스림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상호관계위에 서 있다. 창조과정에서 폭력적인 요소는 감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전체를 창조하며( **קב** 바라) 돌보는 자로( **אֱלֹהִים** 사마르) 묘사된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그의 본보기(Vorbild)를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한 주석과 해석은 전체적인 창조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명령(창 1: 28)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창2:15절에 제시되어 있다. 즉, 사람은 동산을 경작하고( **עָבַד** 아바드) 보존해야 한다( **שָׁמַר** 사마르). 사람과 경작지인 땅은 서로 의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주권(Herrschaft) 역시 땅의 섬김( **עָבַד** 아바드)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과 땅(자연)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관계이다.

둘째 결과는 노동의 근본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고통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원역사는 사람의 노동을 긍정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일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명령에 따른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장이다. 사람의 노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작하다, 섬기다( **עָבַד** 아바드)’이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언가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낱말에서 ‘중’( **עָבַד** 에베드)이라는 단어가 파생된다. 원래 그 뜻은 가치중립적인데, 9장의 포도원이야기에 가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뀐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주종관계인 수직적 관계로 변질된다. 이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로 이어지는데, 이 노동관의 목적은 일로부터 해방되는데 있다. 하지만 노동

45) 다음 책에서 재인용함, in: H. Junker, *Die Biblische Urgeschichte in ihrer Bedeutung als Grundlage der alttestamentlichen Offenbarung*, (Bonn: Hanstein, 1932), 23쪽: 주권개념에 대하여 벨하우젠(J. Wellhausen)은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단언한다: “셈족에게 있어 하나님 개념의 진정한 내용은 주권(Herrschaft)이다.”

은 사람에게 주어진 소여이다(창 2: 5). 따라서 바른 노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일의 근원을 알아야 하고, 근본적인 토대위에 노동신학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과정에서 작업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움직이는 존재로서 일했다는 것이 노동신학을 정립함에 중요한 동인을 제공한다. 신은 생각만 하는 추상적인 존재라는 철학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움직이며 일하는 존재인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작업자와 같은 하나님의 노동행위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별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이와 아울러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문화명령(창 1: 28)은 처음부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결과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선악과 사건은 사람이 자신의 절대적인 자율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다. 니므롯의 성읍건설과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향한 노력은 재차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창 4: 26) 그를 섬겨야 한다(עָבַד 아바드). 인간의 주권은 그 한계를 인식할 때만 올바르게 행사되는데, 그것은 피지배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절제를 잃지 않도록 지배자를 지켜준다(שָׁמַר 사마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주권 개념은 원역사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결국 셈의 족보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발견한다.

## 7. 참고문헌

- 강 사문, 「구약의 자연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김 재규,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제 31집(2009년 3월), 52-72쪽.  
 이 용호, “시편 8편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33집(2009년 9월), 10-28쪽.  
 이 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창 1-11장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하 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제 30집(2008년

- 12월), 126-146쪽.
- Borst, Arno, *Der Turmbau von Babel Bd. IV Schlüsse und übersichten. Geschichte der Meinungen über Ursprung und Vielfalt der Sprachen und Völker*, (Stuttgart: Hiersemann, 1963).
- Ebach, J.,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 in: ThPQ152(2004), 275-283쪽.
- \_\_\_\_\_, *Kain und Abel*, in: „... und behutsam mitgehen mit deinem Gott, (Theologische Reden 3), (Bochum: SWI-verl., 1995).
- \_\_\_\_\_, *Arbeit und Ruhe*, in: Ursprung und Z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6).
- \_\_\_\_\_, *Wel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Stuttgart: Kohlhammer, 1979).
- Eggebrecht, Arne. u.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 Herder, Johann Gottfried,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Bd. 6) (Frankfurt a. M.: Dt. Klassiker-Verl., 1989).
- Hess, Richard. S., *Studies in the Personal Names of Genesis 1-11. Veröffentlichungen zur Kultur und Geschichte des Alten Orients und des Alten Testaments (AOAT)* (Bd. 23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 Jacob, Benno,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 Junker, Hubert, *Die Biblische Urgeschichte in ihrer Bedeutung als Grundlage der alttestamentlichen Offenbarung* (Bonn: Hanstein, 1932).
- Kant, Immanuel, *Mutmaßlicher Anfang der Menschengeschichte*, in: Kant Werke in sechs Bänden, W. Weischedel(Hg.), Bd.6,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Darmstadt: Wiss. Buchges., 1977).
- Keel, Othmar/Kücher, Max, *Synoptische Texte aus der Genesis*, (Fribourg: Verl. Schweizer. Kath. Bibelwerk, 1971).
- Liedke, G., *Von der Ausbeutung zur Kooperation, in: Humanökologie und Umweltschutz*, E. von Weizsäcker(Hg.) (Stuttgart: Klett, 1972).
- Lohfink, Norbert, *Unsere großen Wörter*, (Freiburg: Herder, 1985).
- Papajorgis, Kostis, *Der Rausch. Ein Philosophischer Aperitif*, (Stuttgart: Dtv, 1993).
- Pettinato, Giovanni,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 Richardson, Alan, *Die biblische Lehre von der Arbeit*, (Frankfurt a. M.: ANKER, 1953).
- Rüterswörden, Udo,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 Schmidt, Werner H.,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4).
- The Midrasch Rabbah, *Genesis I*, (Tübingen: Mohr Siebeck, 1999).

- Uehlinger, Christoph, *Weltreich und eine Rede, Eine neue Deutung der sogenannten Turmbauerzählung(Gen 11,1-9)*, (OBO 101) (Freiburg: Univ.-Verl., 1990).
- Vetter, Dieter, *Das Judentum und seine Bibel, Religionswissenschaftliche Studien 40*, (Würzburg: Echter, 1996).
- Von Soden, Wolfram, *Der altbabylonische Atrachasis-Mythos*, in: TUAT Bd. III.
- Wallis, Gerhard, *Die Selbstverwirklichung durch die Arbeit im Alten Testament*, in: *Mein Freund hatten einen Weinberg*, (Frankfurt a. M.: Lang, 1994).
- Westermann, Claus, *Genesis BK I/1. Teil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 Westermann, Claus, *Arbeit und Kulturleistung in der Bibel*, (München: Kaiser, 1984).
- Wenham, Gordon J., *Genesis*, (Dallas, Tex.: Word Books Publ., 1987).
- Zenger, Erich, *Gottes Bogen in den Wolken*,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1983).

## 주제어

창조

주권

노동

경작

문화명령

# Arbeit und Herrschaft in der biblischen Urgeschichte(Genesis 1-11)

**Hyung Youn**, Dr. Theol.  
Lecture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Wie lässt sich das Verhältnis Gottes zur Welt und zum Menschen beschreiben?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ist es, durch die Behandlung des Themas „Arbeit“, Aspekte des göttlichen und menschlichen Wesens in der biblischen Urgeschichte zu analysieren, denn die Bibel erzählt sowohl die Geschichte der göttlichen als auch die der menschlichen Arbeit. Als die hermeneutische Methode wird die kanonische Auslegung versucht, die als das Standard der Interpretation auf der Endgestalt des Textes beruht. Sie trägt dazu, die eigentliche theologische Dimension der biblischen Texte zu entdecken. Um das Wesen der göttlichen und menschlichen Arbeit zu begreifen, sollen die entsprechenden Texte der biblischen Ungeschichte ausgelegt werden, die mit der Arbeit zu tun haben. Vor allem wird die charakteristische göttliche und menschliche Tätigkeit untersucht. Daraus resultieren drei Ergebnisse. Erstens: Herrschaft ist das Zentrum göttlicher und menschlicher Arbeit. Zweitens: Menschliche Arbeit ist überhaupt nicht Resultat des Fluchs, sondern ursprüngliche existentielle Gegebenheit. Drittens: Gott hat den Menschen als tätiges Wesen bestimmt, für dessen Wesen Arbeit konstitutiv ist. Die menschliche Tätigkeit in der Geschichte als Verwirklichung menschlicher Autonomie wird von Gott respektiert, insofern sie ihr Maß bewahrt. Reaktionen Gottes sind immer Folge menschlicher Grenzüberschreitungen, die aber keine äußer-

lichen Strafen darstellen, sondern sie garantieren, dass die Tatfolgen eintreten. Aber trotz aller Misserfolge gibt Gott seine Hoffnung für den Menschen und seine Beziehung zu ihm nicht auf. Gott steht also nicht in einer distanzierten Beziehung zur Welt, sondern ist in ihr tätig, damit ihre ursprüngliche Bestimmung doch noch wirklich wird. Schließlich beträgt diese Untersuchung dazu, dass die bisherige negativ beurteilte menschliche Arbeitstheologie korrigiert werden soll. Das Verhältnis vom Subjekt und Objekt bei der Arbeit steht nicht in der Herr- und Knechtschaft, sondern in der Korrelation beider Seite.

### Key words

Schöpfung  
Herrschaft  
Arbeit  
Bearbeiten  
Kulturauftrag

- 투고일: 2011년 6월 29일
- 심사일: 2011년 7월 30일
- 게제확정일: 2011년 8월 13일